

장기 손상시키는 전신질환...면역 회복 중요

건강 바로 알기
류마티스 관절염

도움말= 이정원 광주병원 류마티스 내과 원장

기상 때 관절 붓는 증상
손목 등 작은 관절부터 염증
합병증 예방위해 장기적 관리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던 70세 여자 환자가 손가락 끝관절의 통증과 함께 두꺼워지는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다.

환자는 주변사람들에게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모양 변화는 류마티스관절염이라고 들었으며, 관절의 장애에 대해 몹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과연 손가락 관절의 통증과 모양의 변화를 가지고 류마티스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전신의 어느 관절이라도 침범할 수 있으며 관절 이외의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전신 질환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면역체계가 관절 그리고 관절 외의 장기를 공격하는 자기면역질환의 일종이다.

특징적으로 30대 전후의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며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손목관절과 같은 작은 관절을 우선적으로 침범하여 소위 조조강직이라고 부르는 기상 후 뻣뻣한 증상을 느끼고 동시에 관절이 부어 운동범위에 제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류마티스관절염은 모든 연령대에서 그리고 남성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



이정원 광주병원 류마티스 내과 원장이 무릎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병원 제공>

으며 큰 관절에서부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다른 관절염과의 구분이 어렵다.

류마티스관절염은 흔히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불리는 골관절염과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병태생리와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상담해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은 관절의 모양이나 증상만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염증수치 및 자가항체검사를 포함한 혈액검사, 관절의 X선 사진 그리고 관절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큰관절의 활막염이 있을 때에는 다른 관절염과 구별하기 위해 관절 천자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검사들을 종합해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하게 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질병조절 항류마티스약제 투약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절의 염증과 변형을 막기 위한 치료를 시작한다.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이러한 약제들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및 관절의 상태평가를 통한 용량 조절이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억제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일부에서 영구적인 관절 손상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절 외 침범을 통해 기대수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절의 증상 완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절의 관리,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치료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만성질환으로서 약물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약

의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약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소개한 여자 환자의 경우 고령이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환자였다. 혈액검사, X선 사진 검사상 연골이 손상돼 발생하는 관절강의 좁아짐, 뼈의 과형성소견을 보여 골관절염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진통소염제 투약 및 물리치료와 같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됐다. 이 같이 치료와 예방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공와우 이식 어린이 ‘가족캠프’

전남대병원 19일 개최

전남대병원(병원장 이상용)이 인공와우 환아들을 위한 가족캠프를 오는 19일 광주드림잡스쿨과 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공공보건교과·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인공와우 가족캠프는 인공와우 이식수술 환아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친목을 도모해 환자들의 재회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와우 이식수술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고심도 난청 환자들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며, 수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캠프는 이비인후과 의사 11명,

언어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2명을 비롯해 환아 및 가족 85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환아와 부모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위해 직업체험·웃음치료·전시관 관람 등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환아들에게는 병원·제과·뷰티샵·항공·119소방안전센터·도예·바리스타 등 여러 가지의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부모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인공와우 기기관리 및 무선 액세서리 상담 등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전남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지난 1990년 영호남 최초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380여 건의 수술을 수행했다. /채희종기자 chae@

경구용 항생제, 신장 결석 위험 높인다

어릴수록 두드러져

일부 경구용 항생제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소아 비뇨기과 전문의 그레고리 타시안 박사 연구팀이 신장 결석 환자 2만5981명과 이들과 연령대, 성별 비율을 맞춘 대조군 25만 9797명을 대상으로 항생제 노출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12개 계열의 경구용 항생제 중에서 설파제 등 5개 계열의 항생제가 신장 결석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안 박사는 밝혔다.

신장결석 위험 증가는 설파제가 2.3배로 가장 높았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1.9배, 플루오로퀴놀론계와 니트로푸란 토인계 항생제 각각 1.7배, 광범위 페니

실린계 항생제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항생제와 관련된 신장결석 위험은 항생제 투여 3~12개월 후가 가장 높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으나 3~5년 후까지 지속됐다.

이러한 위험은 특히 나이가 적은 연령층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항생제 투여가 많고 이 중 30%는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라는 연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타시안 박사는 추정했다.

항생제가 신장결석 위험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항생제 투여가 장(腸)과 비뇨기의 세균총(microbiome)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신장병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5월 11일 자)에 실렸다. /연합뉴스

10년 십시일반...화순전남대병원 2억여원 성금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진) 임직원들이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한끼의 식사비를 아껴 10년간 2억 6600여 만원을 기부했다.

정진 원장은 최근 올해 병원 임직원들이 모금한 3500여 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에 전달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지역내 쫓나뭇들을 키우자는 취지로 매년 ‘한끼의 행복한 나눔’ 캠페인을 펼쳐, 올해 10년째를 맞았다. 그간 모금해 후원한 총액이 2억6600여 만원에 달한다.

이 후원금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결핵아동이나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이혼 등 가정해체로 어린 손자녀들을 돌보는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에 보탬을 주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또한 어린이재단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고 불우한 환경의 아동들을 돕고 있다. 기초수급대상자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들에 대한 의료비 보조 외에도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는 등 총체적인 서비스에 힘쓰고 있다.

정진 원장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활동과 사회공헌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이 올해 모금한 3500여 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에 전달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멜라토닌, 비만 억제 도움 된다”

24시간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비만 억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그라나다 대학병원 약학과와 아마다 알달라 교수는 멜라토닌이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하는 갈색지방(brown fat) 조직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멜라토닌은 이와 함께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지방을 저장하는 백색지방(white fat) 조직을 감소시킨다고 알달라 교수는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쥐 실험을 통해 밝혀

졌다. 멜라토닌이 투여된 쥐들은 복부의 갈색지방이 늘어나는 한편 백색지방은 줄어들었다. 멜라토닌은 피하의 백색지방을 베이지색 지방(beige fat)으로 전환해 에너지를 연소시키는 지방조직을 늘려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달라 교수는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갈색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UCP1 단백질을 증가시켜 지방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열 발생 능력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UCP1은 갈색지방의 칼로리 연소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단백질이라고 알달라 교수는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신장병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최신호(5월 11일 자)에 실렸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능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종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